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 연구*

-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윤 주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ubhyunju@hanmail.net)

국문요약

이 연구는 이민 사회 도래에 따라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장기체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정주형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우선 외국인정책기본계획(제1~4차) 수립에 나타난 유학정책을 살펴보고, 급격히 증가한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뿐 아니라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면담지를 구성한 후, 베트남 국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후 어학연수(D-4), 학부(D-2), 대학원 진학(D-2-3), 구직비자(D-10), 비전문취업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거주(F-2), 지역특화형(F-2-R) 영주(F-5), 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교육과정’ 즉, ‘한국 정주 주기별 교육과정’ 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는 초국가주의 관점에 기초한 유학정책과 교육혁신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총체적 의미의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 초국가주의 외국인 유학생, 이민 사회, 베트남 국적 외국인, 한국 정주 주기별 한국어 교육과정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1S1A5B8096275)이며,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다.

I.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이민 사회 도래에 따라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체류 장기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국내 체류외국인¹⁾은 COVID-19 발생 이전 이민 250만 명에 육박하여 전국적으로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으며, 국적(지역)별·연도별 입국자 현황 분포에 있어 베트남 국적 외국인 수만 해도 작년 대비 888.5% 증가하였다^{별첨 참조}. 이처럼 이미 외국인은 한국 사회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상황을 공감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특히 유학생의 경우 1967년 외국인 우수 인재 선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이윤주, 2022:144),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마다 유입·유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전체 체류외국인의 7.6%, 장기체류 외국인의 10.9%에 해당하며, 그 규모는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학위과정 유학(D-2)과 어학연수(D-4)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COVID-19로 인해 어학연수 유학이 급감한 상황이지만 2022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중국 국적 유학생이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나, 2020년 이후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베트남 유학생이 중국 유학생보다 만 여 명이 더 많다²⁾.

외국인 유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몇몇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학 학업 수행에 부족한 한국어 실력, 그리고 한국의 사회 문화 환경에 대한 이해 결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학업 수행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보다 대학 생활과 한국 문화를 익히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것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전규미 외 2019; 차숙정, 2022).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과정 진단이 필요하다. 김명광(2019:11-14)은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려는 외국인 학습자이지만 오늘날 국제 이주가 세계의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도 예외는 아닐 것이며 한국어교육의 수요 신장과 다변화에 따라 한국어 교육과정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규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으로 출입국의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 및 90일 미만 체류할 목적의 단기체류외국인을 포함한 총 국내 체류외국인을 의미함.

2)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11월호 참조.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검색일 2022.12.23).

설계가 해당 목적³⁾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사회적 공감을 통한 압력이 선행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급격히 증가한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담을 통해 한국 유학 생활 적응 및 한국 사회 이주 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체류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한국 정주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가능성을 가늠해 보기 위해 우선 외국인정책기본 계획 수립에 나타난 유학정책을 살펴보고, 급격히 증가한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 및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과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토대로 면담지를 구성한 후, 어학연수비자(D-4), 학위과정비자(D-2), 구직비자(D-10)를 거쳐 비전문취업비자(E-9) 또는 특정활동전문비자(E-7)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목적(유형)에 따른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초국가주의 관점에 기초한 유학정책과 교육혁신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총체적 의미의 한국 사회 정주형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2.1.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정책

외국인 유학생 수는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약 18만 명이 유입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다가 COVID-19의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현재 점차 증가하여 COVID-19 이전 수준보다 만여 명이 증가한 197,988명에 이르렀다⁴⁾. 한류, 선진 한국, 경제적 요인, 국가 인지도, 유학 절차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을 유학지로 선택하고 있다. 한편, 이민 사회에 먼저 도래한 호주 등에서는 해외에서 바로 유입되는 이민자보다 자국에서 유학 생활을 경험하고 졸업한 유학생이 생산성이 더 높고 호주 사회 적응에 드는 비용도 적게 든다는 점에서 유학 경로를 통한 인재

3) 김명광(2019:1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 목적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 목적, 학문 목적, 취업 또는 근로 목적, 한국 사회 적응 목적, 한국인의 사고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 고양 목적, 기타 목적으로 구분하였다.

4)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 추이(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11월호 참조.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index.do>, 검색일 2022.12.23).

확보 및 정주 이민자 확보 비중을 상대적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어, 우리의 이민정책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잠재적 우수 인재 및 전문인력 육성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주요 유입·유치 대상으로 삼고 있다(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 제1~4차 참조).

그간 우리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시작으로, 5개년 단위로 수립되어 제2차(2013~2017), 제3차(2018~2022), 제4차 예정(2023~2027)으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제1~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에 제시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들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1~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시기	비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제1차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일류국가 (4대 영역: 13대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 <u>우수인재에 대한 입국문화 확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제도 개선을 통한 우수인재 유치 촉진 - 출입국 및 체류 편의 제공 - 국적제도 개선 ● <u>국가 차원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 - 우수 유학생 유치 및 활용 지원 강화 - 외국인 공무원 및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유치 지원
제2차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 (5대 영역: 19대 중점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유학생 유치 ● <u>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조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학프로그램의 전략적 추진(교과부) - 우수유학생 유치 전담기관 지정·육성(교과부) - 유학생 한국생활 여건 개선(교과부, 문화부) - 해외 유수의 교육기관 및 해외학자 유치 확대(교과부)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 11월	'22년 11월
총 계	135,087	160,671	180,131	153,361	163,699	168,194	197,988
유 학(D-2)	86,875	102,690	118,254	101,810	111,178	117,335	137,311
한국어연수(D-4-1)	48,208	57,971	61,867	51,545	52,506	50,850	60,650
외국어연수(D-4-7)	4	10	10	6	15	9	27
전년대비증감률	16.5%	18.9%	12.1%	-14.9%	6.7%	-	17.7%

시기	비전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유학생 관리 및 활용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정착(교과부, 법무부) - 글로벌 유학생 채용박람회 개최(교과부, 지경부)
제3차	<p>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p> <p>(6대 영역: 18대 중점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유치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 조성</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장학프로그램(GKS)의 확대 - 유학생 유치 및 관리체계 강화 -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통한 유학 환경 조성 -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기준 강화 -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 교육부의 유학생 전략적 유치·활용 전략에 대한 지원과 협력 - 우수 지방대학 유학생 유치 활성화 - 주요국의 사례 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 개발 ● <u>해외우수교육기관 및 해외학자유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국제화와 경쟁력 제고 - 우수연구인력 확보 및 지한파 인재 양성 - 대학의 질 향상을 통해 만성적인 유학생 연수수지 적자 해결 ● <u>유학생 출신국가의 다변화 추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출신국의 다변화 필요
제4차	<p>국민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p> <p>(8대 영역: 25대 중점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입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육성형 이민정책에 입각한 유학생 유치</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의 체류와 사회통합의 연계 강화 - 유학생 유치조건을 통한 우수인재 영입 - 유학생의 도입-양성-활용을 연계한 종합적 계획수립 ● <u>체류와 통합을 연계한 예측가능한 비자 경로 구축</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 가능한 체계적 비자 경로 로드맵 구축 - 체류와 통합 경로 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사증제도의 개발과 활용을 통한 유입·유치 이민정책 -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구성원 관점의 국적부여 제도 개선

「제1차 기본계획」에서 우수인재 유치, 이민자 사회 적응 지원 등 새로운 정책 분야가 도입되어 기반을 조성하였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국민의 다양하고 상반된 요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균형 잡힌 정책 기조 유지로 안정적인 미래 준비를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중심이다. 그리고 「제3차 기본계획」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반과 제도 조성에 따라 국제화된 캠퍼스 조성을 통해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개방성 확대 및 글로벌 수준의 고등교육 역량 강화를 중점에 두었다. 특히 「제4차 기본계획」의 영역별 중점과제 제안을 살펴보면, 유입-유치에 있어 육성형 이민정책에 입각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항목이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와 사회통합의 연계 강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조건을 다변화를 통한 우수 인재 영입, 외국인 유학생의 도입-양성-활용을 연계한 종합적 계획수립 등을 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0)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고학력자로 잠재적 전문(숙련, skilled)인력이자, 학위 과정 동안 한국 문화에 대해 습득하고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 등 한국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고, 노동시장의 생산성 측면에서도 빠르게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송해련(2022)은 미래의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정착 국가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가가치 창출의 장점을 갖는다고 하였다.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결과(2022)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학령인구 감소 등 인구 규모 변화와 함께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산업구조 고도화 등 양질의 일자리 증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유입되고, 국내에서 필요한 인재로 양성된다면 인력 활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주지하자면 외국인 유학생은 상당 기간 한국 체류를 통해 이미 ‘한국화’된 외국인이므로 체류 규제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면 자신의 역량에 따라 한국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자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주 주기에 맞춰 이루어지는 연계적이며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발에 앞서 요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 분석은 이민 사회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정주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으며 이민 사회에 가장 중요한 언어교육 즉, 한국어교육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2.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97,988명으로 약 20만 명에 이르며,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⁵⁾

구 분	총 계(명)	유학(D-2)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총계	197,988	137,311	60,650	27
베트남	69,780	32,201	37,576	3
중 국 ⁶⁾	59,432	53,599	5,833	0
한국계	560	555	5	0
우즈베키스탄	11,448	9,579	1,869	0
몽골	10,861	6,350	4,511	0
일본	5,476	3,077	2,399	0
네팔	2,756	2,585	170	1
미얀마	2,650	1,063	1,587	0
인도네시아	2,517	2,192	325	0
미국	2,376	2,081	294	1
프랑스	2,170	1,864	306	0

베트남 국적 유학생은 유학(D-2) 32,201명, 한국어연수(D-4) 37,576명, 외국어연수(D-4-7) 3명으로 총 69,780명을 차지하며 전체 외국인 유학생 수 197,988명 중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한다. 이윤주 외(2022:17)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유학생 수의 연도별 추이는 중국 국적 유학생이 2019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달리, 베트남 국적 유학생은 201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중국 국적보다 더 많은 유학생이 한국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수학하고 있으며 그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체류외국인 분포에서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다른 국적 외국인보다 국적(지역)별·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체류 외국인 연도별·국적(지역)별 현황,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 특정활동전문비자(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별첨]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국적(지역)별 현황에서 총 체류외국인 2,194,780명

5)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2년 11월호 참조 (검색일 2022.12.23).

6) 한국계 포함

중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233,660명으로 중국(한국계 포함) 국적 외국인 다음으로 높았다. 또한 취업 자격 체류 외국인 현황에서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총 445,235명 중 45,397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특정활동전문비자(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에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23,020개 전체 직종에서 4,187개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전문인력(67개), 일반기능인력(8개), 숙련기능인력(3개)에서 중국보다 더 많았다.

이러한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 원인은 베트남 현지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으로, 유학생은 베트남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베트남인의 취업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 유학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베트남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한 2004년 이후로, 고용허가제 허가를 받아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현재에는 연수생, 유학 후 취업, 친척방문, 계절 근로 등 여러 가지 유입 경로를 통해 한국에 들어온다(전혜정·이가연, 2015; 전혜정, 2019).

게다가 이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의 경우,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전체 169,800명 중 39,358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의 23.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 취득 현황에서도 베트남 국적 외국인인 2017년 3,743명, 2018년 4,849명, 2019년 3,867명, 2020년 4,076명, 2021년 4,225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별첨 참조)

이같이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 이민 사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인식에 관한 진단이 필요하다. 박종호(2021:38)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한국어교육 측면에서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베트남 유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외적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어교육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먼저 대학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연구 및 베트남 유학생의 요구 조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3.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교양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김명광(2021)은 각 대학이 인성교육의 기반이 되는 교양교육과정의 확대와 인문학적인 부분의 강화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지만 동일한 시기에 각 대학이 유사하게 외국인 유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양교육의

변화 발전 방안에 자연스럽게 글로벌 교육으로 이해되는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한국학 교육을 위한 한국어’ 등의 교육과정이 함께 다루어졌다고 하였다.

일례로 [그림 1]을 살펴보면, 고려대학교는 교양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필수 과목이 되도록 공통과정과 선택과정으로 나누어 편성하였다. 공통과정은 학업 역량 다섯 가지 요소(언어적 역량, 지식 역량, 기술 역량, 인지적 역량, 정의적 역량)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과정은 학습자 필요에 따라 특정 역량을 선택하게 하였다.

교양 교육 과정	공통	고급	언어적 역량+기술 역량(2)	지적 역량(3)
			인지적 역량 + 정의적 역량	
		중급	언어적 역량+기술 역량(3)	지적 역량(2)
			인지적 역량 + 정의적 역량	
		초급	언어적 역량+기술 역량(4)	지적 역량(1)
			인지적 역량 + 정의적 역량	
선택	*			

교양 교육 과 목	한국어	일반한국어, 한국어 말하기, 한국어 읽기, 한국어 쓰기, 한국어능력시험, 시사한국어, 학문목적 한국어, 사고와 표현, 학문적 글쓰기
	기초이론	일반화학, 일반물리학, 미적분학, 일반물리학, 철학적 사유, 동서양 문화와 문명
	한국의 이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 대중문화, 북한의 이해, 한국 경제
	기타	요가와 명상

[그림 1] 고려대학교 외국인 교양과정 및 교양교육 교과목 구성

특이한 점은 공통과정에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수준별로 구분하여 학습자 개인 역량에 대한 학습 중점 분포를 고려하여 설계하였으며, 교양교육 과목으로 한국어, 기초이론, 한국의 이해, 기타 유형으로 나누었다. 한국어의 경우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와 같은 언어기능 교과목을, 기초이론의 경우 교양 수준의 교과목을, 한국 문화의 경우 한국 사회와 문화를 주제별로 나누어 교과목을 편성하였으며, 기타로 요가, 명상을 교과목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새롭게 접근한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김종일(2017)은 대학 특성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모형 구안에 앞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학생들이 경험하는 학업 부적응 요인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만을 위해 제공되는 교양과정과 각 대학의 유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대체로 ‘분리형’, ‘통합형’, ‘거주형’이 있는데, 국내 대학에서는 보편적으로 ‘분리형’을 취하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부적응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최초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부터 대학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 아래, ‘이해 중심 교육과정’을 제안하였으며 ‘학습자 중심의 ‘특성화 교육과정’이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민경(2021)은 매체에 의한 한국어 교수·학습을 통해 한국어 매체 문식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이는 언어의 사회적 기능과 실현에 초점을 두는 기능 문법(Functional Grammar)에 바탕을 둔 것으로, 매체 한국어는 문자와 음성, 시각 언어를 결합한 통합적 언어의 차원에서 한국어 소통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또한 매체에 담긴 한국어와 한국 사회·문화에 대한 해석 및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은 안정적인 사회 적응과 한국 사회 내 주도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2007년을 기점으로 근래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유입되는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수가 급증하면서 베트남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도 증가하였다. 응웬티꾸잉안(2020)은 베트남과 한국에서 발표된 베트남 관련 한국어교육 연구(논문, 보고서, 단행본, 교재 포함) 총 390편을 선정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최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내 발표 논문이 176편으로 전체 45%이며, 박사학위 24편, 석사 213편, 학술논문 122편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주제별로는 한국어교육 일반 40편, 한국어교육 내용 148편, 교수·학습 87편, 대조 연구 78편, 통·번역 6편, 기타 31편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교수·학습에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연구는 석사 4편, 박사 2편으로 학위 논문에서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는 지식의 확장과 공유를 위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며 토론하는 장인 학술지 연구가 없다는 것은 베트남 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전문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베트남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며(남은영 외, 2019:104), 심지어 근래의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의 실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초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이나 개선 방안 등을 논한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강수정 외, 2021:228). 특히 이정민 외(2022)에서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경험한 학습은 결코 장소에 국한되어 일어나지 않으므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대학 내의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교육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조현용(2018)은 베트남인 유학생들의 경우, 어학연수 이후에 학부 및 대학원에까지 진학하는 비율이 높기에 이들을 위한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이들이 학부, 대학원에 수월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베트남 유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나 전문적인 교재 개발 연구가 미비하며, 한국어교육 연구들이 다양화되었지만 질적으로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유학(D-2)하고 구직(D-10) 활동을 통해 비전문활동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를 받은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한국 유학 경험을 탐색하고,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효용성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동기 심층 면담

3.1. 연구 방법

이 글은 베트남 유학생 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에 연구에 필요한 특성을 갖춘 연구 참여자의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에 어학연수를 와, 학부 또는 석박사 학위 과정을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거친 후, 한국 회사에 취업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 유학생 사증 발급 목록은 <표 3>과 같다.

<표 3> 외국인 유학생 관련 사증(VISA) 발급 목록

사증 구분	채류자격별 분류				
어학연수	대학부설어학원연수 (D-4-1)		초중고생 (D-4-3)	외국어연수 (D-4-7)	
유학	전문학사 (D-2-1)	학사유학 (D-2-2)	석사유학 (D-2-3)	박사유학 (D-2-4)	
	연구유학 (D-2-5)	(학사)교환학생 (D-2-6)	일-학습연계 (D-2-7)	단기유학 (D-2-8)	교환학생 (D-2-F)
전문직 취업 ⁷⁾	구직활동(D-10-1)			창업준비(D-10-2)	
투자/경영 ⁸⁾	외국인 투자(D-8-1~4)		무역교류거래(D-9-1)	경영영리사업(D-9-4)	
지역 맞춤형 ⁹⁾	지역특화형(F-2-R)				

7) D-10 구직비자는 국내 기업에 정식 취업하기 전에 구직 활동 및 인턴 과정을 밟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채류자격이다. 주로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대학생들이 이 비자를 받는다. 최대 2년으로 본인 전공과 관련된 직종을 찾아야 특정활동전문(E-7) 비자로 변경이 가능하다.

연구 참여자 모집은 연구자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하였으며 2022년 12월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베트남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에 유학(D-2 또는 D-2-1)을 와서 학업을 마친 후 구직비자(D-10)를 받고 나서, 구직활동을 통해 비전문취업비자(E-9) 또는 특정활동전문비자(E-7)를 받은 5명이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대상자를 우선순위로 선택하였다. 연구 참여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1. 참여자 A는 여성으로, 2018년 대구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부산지역 경영대학원(D-2-4)에서 국제무역통상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구직비자(D-10)를 받아 인천에서 구직 활동을 하다 2021년에 대구로 와 중국무역 관련 회사에서 인턴사원(E-7)으로 일하고 있다.
2. 참여자 B는 남성으로, 2015년에 경기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본교(D-2-1)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하였다. 3년제 졸업 후 구직비자(D-10)을 받은 후, 친구 소개로 하남시 소재 식품 회사에 입사(E-7)해 일하다가 COVID-19로 인해 2021년 퇴직하였다. 이후 구직비자(D-10) 재발급받았으며 2023년 3월에 비자가 만료된다.
3. 참여자 C는 여성으로, 2012년에 서울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본교(D-2-1)에서 영어학과를 전공하였다. 이후 경상지역 대학 국어국문학과에 편입(D-2-1)하였으며, 학부 졸업 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으로 석사(D-2-3) 학위를 받았다. 2년 동안 구직(D-10) 활동을 하다 최근 병원코디네이터(E-7)로 일하고 있다.
4. 참여자 D는 남성으로, 2018년에 경산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본교(D-2-2)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였다. 구직비자(D-10)을 받은 후, 2021년 외국인 유학생(D-2)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활용 법안에 따라 식품회사에 취업해 기계설비기능자(E-9)로 일하고 있다.
5. 참여자 E는 남성으로, 2018년 대구지역 대학으로 어학연수(D-4)를 와 본교(D-2-1)에서 조리학과를 전공하였다. 휴학을 거친 후 구직비자(D-10)를 받아 현재 요식업체에

8) D-8은 기업투자비자이며, D-9는 무역경영비자로 외국인 개인사업자 발급 비자이다.
 9) F-2-R은 지역특화형 비자로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인데 대상자 범위에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다(법무부, 22.07.25일 보도자료 참조).

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활동전문비자(E-7)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경영비자(D-9)를 준비 중이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면담 시작 전 연구 주제와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연구자 동의서에 서명 후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사람당 약 한 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모두 연구자와는 충분한 라포(raport)가 형성되었기에 자연스럽게 면담 질문을 할 수 있었다. 우선 한국 체류비자 과정, 한국 유학 동기, 한국 유학 생활 경험(한국어 학습 과정, 학부 교육과정, 생활세계, 경제활동, 학생으로서의 베트남인 등), KIIP 참여 경험, 한국 정주를 위한 본인의 노력, 한국에서 외국인/베트남으로 사는 삶, 한국어 연수과정 또는 학부 과정에서 필요했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구직비자(D10) 기간 동안 생활, 한국 정주 이유,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현재의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해서 질문하였다. 면담자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답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면담을 마무리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인간 경험의 기술(description)을 분석적 방법을 통해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 진행하였다. 신경림 외(2014)에서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는 체험을 변형 및 해석하지 않고 우리가 겪은 그대로 기술함으로써 체험에 접근하는 데 있어 통계적 방법을 통해 일반화 또는 설명 법칙이나 이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체험에 대해 기술적으로 접근하여 풍부하게 기술하고 해석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였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수집된 내용과 정리된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으면서 주제 분석(thematic anal)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겪은 다양한 체험의 전체적인 맥락을 확인한 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상위 주제는 ‘한국 정주 이유’, ‘한국 유학 생활’,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3개로 분류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이 3개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으며, 자료의 실재성을 위해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다.

3.2. 연구 결과

1) 한국 정주 이유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동기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한류의 영향이다. 게다가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각 국가는 국경을 넘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외국인 유학생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내 취업을 돕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고,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여 원하는 직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⁰⁾.

한국에 계속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베트남보다 높은 월급이에요. 베트남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300만 원 월급이에요. 그리고 베트남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아주 많아져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국에 유학을 갔다왔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참여자 B).

한국은 너무 깨끗해요. 중국에도 가 봤는데 중국보다 한국이 더 깨끗하고 편리해요. 그러니까 오염도가 낮아요. 그리고 한국 교통은 너무 편리해요. 지하철이 모두 있어서 너무 편하게 다녀요. 이제 한국이 익숙해요. 지역특화형(F-2-R) 비자가 생겨도 농촌으로 안 갈 거예요(참여자 A).

한국은 기회가 많아요. 저는 석사 졸업생이라서 전공과 상관없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특히 한국어를 잘하면 일자리가 많아요. TOPIK 6급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참여자 C).

최근 세계적 청년 구직난으로 인해 베트남에서의 일자리가 찾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또한 위 학생들은 한국 거주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오랜 기간 한국 체류를 통해 선진 한국에 익숙해져 편의 생활, 안전 보장, 임금, 일자리 확보 등 유학을 통한 한국 정주에 만족하고 있었다.

2) 한국 유학 생활 과정

교육부 외(2018:160-171)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어 강화 지원 서비스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소통이 어렵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상담을 통한 생활의 문제점 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유학 생활의 지원을 위해 한국인 학생들과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0) studyinkorea (<https://www.studyinkorea.go.kr/ko/main.do>) 참조(검색일자 2022.12.31).

유학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르바이트예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저녁이나 주말에 일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특히 우리 외국인인 4시나 5시부터 일해야 하는데 수업이 5시, 6시에 있으면 아르바이트도 없어요. 학교에서 일하면 좋지만 학교에는 1~2개만 있어요. 그리고 한국 학생이나 교수님이 소개해 줘요. 우리는 한국 사람과 커뮤니티가 없어요. 모두 베트남 사람들끼리 이야기해요(참여자 A).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해요. 그런데 대학생 때 일할 시간이 너무 적으니까 모두 불법으로 일해야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한국어와 일할 때 말이 많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 말을 빨리해요. 고향에 있을 때 몰랐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 말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ㄹ’을 잘 못해요. 한글을 배울 때부터 발음과 한국 문화를 잘 배워야 해요. 어떤 유학생은 발음을 잘못하고, 어떤 유학생은 쓰기를 잘못해요. 개인별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E).

우리 회사는 한국 과자를 수출해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이지만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기계 전공이라 쉽게 비자를 받았어요. 이 회사는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일한 곳이에요. 일하는 곳을 먼저 정하면 공부하기 좋아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떤 전공이 좋은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찾아야 해요. 전공과 취업을 알려 주면 좋겠어요(참여자 D).

대부분의 베트남 유학생은 학업-일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학업에 전념할 수 없어 한국어 수업의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류자격 외 활동이나 시간제 취업(S-3)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또한 본국의 한국어교육에서 입국 목적과 거리가 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입국 목적에 맞는 교육이 유학 준비 시 또는 초기 입국 시기부터 진행되어야 한다.

3)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1:246)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미래 계획은 학력에 따라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학부생들은 주로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하나 어떻게 취직을 하는지도 잘 모르며, 석박사 유학생들은 학부생들에 비해 국내 취업에 대해 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구체적으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막막해하고 있었다.

원래는 제가 다른 대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한국어 선생님이 우리 대학에 있는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하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무슨 학과가 좋은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식품영양학과

는 E-7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든 학과예요. 조리학과 전공이면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일할 수 있고 식당 매니저 일도 할 수 있어요. 전공 선택 전에 대학교에서 전공과 취업을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참여자 B).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2015년 경상도로 왔어요. 그런데 말이 서울과 달랐어요. 지금은 익숙해졌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 살려면 사투리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직장 어휘도 필요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는데 병원 어휘를 모두 공부했어요. 대학교 때 여러 가지 어휘를 가르쳐주면 좋겠어요(참여자 C)

한국에서 E-7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두 자기 전공과 직장이 달라요, 그리고 비자 바꿀 때 법률사무소에 맡겨요. 한 300~350만 원 정도 해요. 그래도 우리는 잘 모르니까 돈을 줘요. 대학에서 전공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전공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공부할 때 전공을 바꿀 수 있으면 한국에서 취업하는데 편하겠어요(참여자 E)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과정은 어학연수과정(D-4)과 학부과정(D-2)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두 과정 모두 학습자들의 인구학적 배경이나 한국어교육 정도, 학습자 요구 등 학습자 변인에 대한 고려 없이 교과목이 개설되어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나 학부 교육과정 중 학습자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나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 교육, 사업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전공 선택에 관한 로드맵 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IV. 한국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4.1. 한국 정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

다변화되는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변화와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정주 가능 이민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과는 다른 한국어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김명광(2019:17-19)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정은 졸업할 때까지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학문을 학습하기 위한 목표로 이루어지기에,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되는 한국어 이외에도 ‘대학 생활 적응이나 기초적 학문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자신이 선택한 전공 계열의 전반적인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세부적인 수학에 필요한 한국어’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장지영 외(2020)에서는 대부분 한국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아시아 국가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기에 학업과 일을 병행해야 하며, 학위 취득 후 직업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직업 목적 한국어’와 ‘학문 목적 한국어’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하였으며, 박지순(2018)은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 다양한 영역의 교육 자료가 개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전공 분야의 학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특수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에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가연 외(2022)에서는 현재 한국에서 학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학생이자 저숙련(시간제 취업) 노동자, 지역주민, 그리고 미래에 한국 사회의 잠재적 거주자 또는 고숙련 노동자로서의 다중적 정체성을 가진 이민자 집단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정책은 미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은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는 경험 중심 교육이나 학습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비의도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습득)하게 되는 잠재적 교육이 한국어 교육과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unofficial curriculum)이란, 공식적 교육과정(official curriculum)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육기관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 조직, 사회적·심리적 상황을 통해 은연중에 가지게 되는 경험을 말한다(이승연 외, 2020:877). 교육 방법은 비의도적 학습이며 학습 영역으로는 정의적 영역을 포함하며, 학습 내용은 바람직한 내용뿐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은 것도 학습하는 교육과정이다. 박지순 외(2020)에서는 언어 학습에 있어 주로 목표 언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 문화(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데,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젠더의 관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분석 방법으로는 교재 분석이 선호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짧게는 6개월(D-4), 길게는 최장 7년(D-4, D-2, D-2-1, D-10)의 유학 생활을 해야 하므로 흥미, 태도, 가치관, 신념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우수 인재로 선발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일자리 제공, 지역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비자(F-2-R) 발급 정책으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정주 가능성은 더 유리해졌다. 이때 사회의 문화·풍토, 교수자의 정서적·인격적 영향과 관련이 있으며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항구성을 지닌 잠재적 교육과정이야말로 한국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에

적합하다.

두 번째로 교수요목은 의사소통 교수요목 유형 중 완전 개념 교수요목(Fully notional syllabus)을 지향해야 한다. 기존의 교수요목과 다른 점은 개념 범주를 먼저 설계한 후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가르쳐 줌으로써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곧 완전 개념 교수요목은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의미와 기능과 관련된 범주를 먼저 설정하여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교사 또는 학습자가 필요할 때 어느 항목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이다. 특히 이 교수요목은 다양한 사회언어학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는 물론이고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역할, 심리적인 태도, 대화의 장소와 시간 등 심리언어학적 요소까지 고려된 교수요목이라 할 수 있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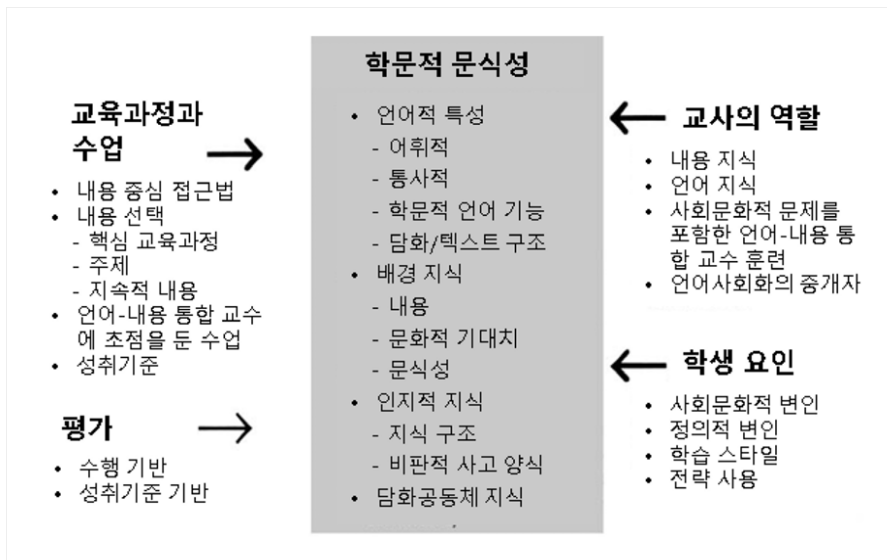
완전 개념 교수요목을 설계하고자 할 때의 출발점은 그 언어를 배우려 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사상과 관념을 예측하여 이들이 쓰이는 실제적인 기능을 미리 알아서 찾아내야 한다. 김진우(1981)는 완전 개념 교수요목은 언어의 현상들을 기능별로 나누어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안에서 살아있는 언어를 노출시킬 수 있으므로 차후 직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에 용이하다고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은 보편적으로 어학연수(D-4)에서 학부(D-2)를 거쳐 대학원 진학(D-2-3) 또는 구직비자(D-10)을 받고 난 후, 비전문취업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순으로 체류 자격을 가진다. 게다가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방향까지 고려한다면 한국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교수요목은 나선형 접근이 가능한 완전 개념 교수요목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교육 내용 범주 및 교수-학습법에 있어서도 언어와 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 중심 수업’으로 설계해야 한다. 학습 목표와 내용 학습자의 언어와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개인적 학습 발달의 차이를 적용하여 교수-학습 계획과 운용 및 언어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이 기능에 맞게 단계별로 나뉘어 제시되어야 한다.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학습 영역에서도 외국인 유학생들의 개인 변인을 고려하여 비판적 창의적인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형태의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교육수요자들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즉,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유도하고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현장 친화형’ 또는 ‘현장 밀착형’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 유학 생활 경험들을 연계하여 인지적·학문적으로 유의미한 수업을 실시하여 상호 문화적 의사소통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리고 주요 학습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11) 김명광(201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론 P174-179 참조.

보조 자료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활용하여 미래 사회 메가트랜드에 맞춘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학습으로 끝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주변과 좋은 관계성을 맺으며 원만한 품성을 갖추어 인격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핵심 가치를 중심에 두는 교육 내용이야말로, 경험을 공유하고 상황을 공감하며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이 일상이 되는 이민 사회의 교육적 실천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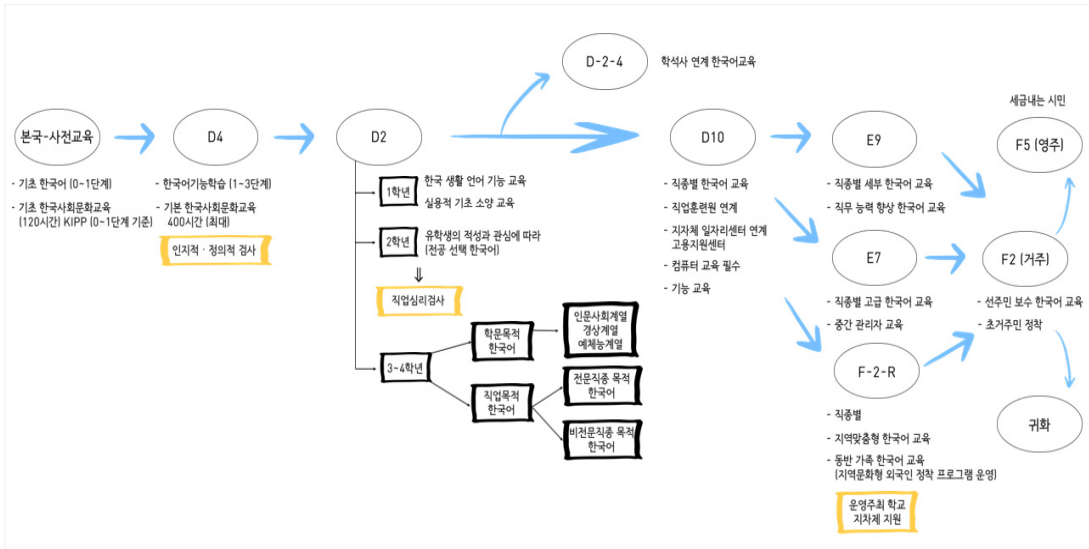
다시 말해, 본 연구의 한국 정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의 교육목표, 교수요목, 교육내용 범주는 Snow(2005)이 제안한 언어-내용 통합 교수를 위한 문식성 모형과 유사하다. Snow(2005)은 학습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이 학업 수행에 필수적이며, 학문적 구성 요소에 ‘언어적 특성, 배경지식, 인지적 지식, 담화 공동체 지식’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한국 정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교육과정도 이같이 한국에 체류하며 비의도적으로 학습(습득)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 교육목표가 되어, 한국 체류 상황에 맞게 학습자가 필요로 하는 의미와 기능을 어느 항목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제시를 교수요목으로 선정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 중심 설계를 교육내용으로 한다. Snow(2005)의 언어-내용 통합 교수를 위한 학문적 문식성 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언어-내용 통합 교수를 위한 학문적 문식성 모형(김지혜 외, 2020:205 재인용)

4.2. 한국 정주 주기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개발은 학문 목적 수행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간극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한국 사회 문화 및 경제적인 문해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이에 연구자는 어학연수(D-4), 학부(D-2), 대학원 진학(D-2-3), 구직비자(D-10), 비전문취업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거주(F-2), 지역특화형(F-2-R) 영주(F-5), 귀화로 이어지는 ‘연계형 교육과정’ 즉, ‘한국 정주 주기별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 비의도적인 학습이 포함된 잠재적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었으며, 완전 개념 교수요목과 내용 중심 수업이 주가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외국인 유학생 한국 정주 주기별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안)

윤향희(2021)는 본국에서 교육받은 한국어 학습이 입국 목적과 거리가 먼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한국 체류 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입학 전 단계에서 유학정보 제공 및 상담 체계를 위해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 대학,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교육부 외, 2018:55). 이에 한국 입국 전 한국어 및 한국 사회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 정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PP) 실시하여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 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해 본국에서 유학 전 준비 단계로 120시간 정도의 기초한국어교육과 기초한국사회·문화교육을 입국 전에 실시한다면 유학 생활에서 겪는 언어 및 문화 적응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는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2:224)의 본국에서의 사회통합 이수제 계획과도 상통한다.

두 번째 단계인 어학연수(D-4)는 현행 어학연수 한국어 교육과정과 유사하다. 다만 진학을 목적으로 한 어학연수 과정이므로 최대 1년, 400시간 동안 어학연수를 한 후, 학습자의 적성과 목표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는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최대 목표로 두므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와 같은 언어기능 영역과 발음, 어휘, 문장, 담화 등과 관련한 문법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문화영역에 대한 기본을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현행과 비교해 보면 한국어 2~3급에 해당한다. 다만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학연수(D-4) 과정에서 개인의 적성 및 진학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주는 교육 영역이 필요하다. 제3장에서 기술했듯이 구직비자(D-10)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해 취업비자(E-7)을 발급받으려면 허용 직종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전공을 잘못 선택했을 경우 구직비자(D-10)을 받고도 취업비자(E-7)으로 변경하지 못해 마지못해 진학(D-2-4)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마저도 여의치 못하면 한국에서 미등록체류외국인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학연수 시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검사를 통해 자신의 학습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구체적 커리큘럼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세 번째 단계인 학부(D-2) 과정은 1~2학년과 3~4학년으로 나누어 구성한다. 학부 과정은 개개인 가진 배경지식, 경험에 따른 언어 사용 능력, 개인별 적응 능력과 학습 능력 등 개인의 일반적 능력을 고려해야 시기이다. 이에 한국어 학습과 사용을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보고 학습자의 일반적 능력과 함께 의사소통적 언어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해외 초중등학교 한국교육과정(안), 2021:6), 사회적 행위자로서의 학습자는 완수해야 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적합해 보이는 전략을 쓰면서, 다양한 조건이 주어져 있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영역(사적, 공적, 직업, 교육 영역)의 주제와 관련한 언어 활용을 수행한다.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 생활 적응 교육, 한국어와 전공 교육, 한국어와 진로 교육 등으로 1학년에는 한국 생활 언어기능 교육과 실용적 기초 소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학년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여 한국어 교육과정을 배우며 학년말에는

‘직업심리검사’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스스로가 ‘학문 목적 한국어’와 ‘직업 목적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4학년에서 이루어지는 ‘학문 목적 한국어’는 전공 심화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자신이 공부하고자 하는 인문·사회 계열, 경상 계열, 예·체능 계열 등 전공 분야에 따라 학습하게 한다. 또한 ‘직업 목적 한국어’는 취업을 전제로 하는 전공 심화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의료, 비즈니스 등 ‘전문직종목적한국어’와 취업 전·후를 목적으로 하는 ‘비전문직종목적한국어’로 구분하여 다양한 산업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과정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네 번째로는 구직비자(D-10) 단계이다. 학부 교육과정이 끝나면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머물면서 진학 내지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 과정으로 진학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양질의 교육과 학습으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이민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구직비자(D-10)를 가진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한국 취업은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면담 사례에서 조리학과 전공인 외국인 유학생이 취업비자(E-7)를 받으려면 우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회사를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요식업은 취업비자가 불가능하다며 돈을 모아 베트남 식당을 창업하는 투자·경영비자(D-8, D-9)을 받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구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부 과정 시 취업 관련 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구직비자(D-1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직업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 설치된 외국인고용 서비스센터와 후쿠오카에 설치된 후쿠오카 학생직업센터를 거점으로 구인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오사카 대학의 경우 일본 도착 전후 체재 생활 및 학습 지원은 물론 취업지원과 학업 후 산업계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교육부 외, 2018:57). 이처럼 학부 졸업 후 직업훈련원과 연계한 교육이나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교육을 통해 양질의 직업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진입은 충분하고도 전문적인 인력자원이 될 것이다.

끝으로, 연구자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유치나 관리적 측면에서 볼 것이 아니라 초국가주의 관점¹²⁾에서 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이민의 대상으로 보았기에 유학생의 신분 이후의 삶에도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전문활동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12) ‘유학생’은 지식을 위해 수용국에 잠시 머물다 돌아가는 단기 체류자로 보기보다는 국경 넘기를 감행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활동을 통해 유학생 본국과 수용국 양 방향 모두에 영향을 미치며, 국경 너머 초국적 공간을 만들어 내는 존재로서 새롭게 사고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든 초국적 공간은 지구화와 국가 간 체제(world society vs. international system) 사이의 틈을 벌리고, 그 틈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1단계 실적보고서, 2021).

지역특화형비자(F-2-R)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에도 한국어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실제적 업무를 순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종별 세부 한국어교육, 직무 능력 향상 한국어교육, 직종별 고급 한국어교육, 중간 관리자 한국어교육, 지역맞춤형 한국어교육, 동반 가족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심층 면담 참여자들 모두 거주비자(F-2)를 받은 후 영주비자(F-5) 또는 한국 귀화를 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 사회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세금 내는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선순환적 모형이 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 주민으로 인식하고 관민일체로 추진체제를 만들어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이 타도시로 이동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별 이민자정책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선주민이 초기이민자를 돕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외국인 유학생을 그 중심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V. 결론

이 연구는 이민 사회에서 항상 중요한 유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초국가주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한국 정주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체류외국인 분포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트남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후, 이들의 요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제시하였다.

1장에서는 이민 사회 도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의 필요성과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증가에 대해 언급하며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을 제기하였다.

2장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자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나타난 유학정책과 베트남 유학생 및 베트남 국적 외국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기본계획수립마다 진행되었으며,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연구에서는 육성형 이민정책에 입각한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영역별 중점과제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어학연수(D-4)를 거친 후, 학부과정(D-2)을 졸업하고, 구직비자(D-10)를 받은 후, 한국에서 취업(E-9 또는 E-7)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한국 정주 이유', '한국 유학 생활',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3개 향으로 분류해 면담자들의 경험을 서술하였다. 이들은 모두 본국보다 높은 임금과 발전된 생활 환경을 이유로 한국 정주를 계획하였다. 그리고 유학 생활 중 학습과 일을 병행하느라고 힘들었다고 하였다. 특히 입국 초기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으므로 초기 한국 생활 적응이 어려워 베트남 국적 커뮤니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 정주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에서는 전공 선택에 관한 로드맵 제시가 필요로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 구직활동(D-10) 후 특정활동전문비자(E-7)을 받으려면 전공 관련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으므로, 학부 진학 전 구체적인 전공 설명회 및 심리검사를 통한 한국어 및 한국 생활 적응과 진로 탐색의 장을 요구하였다.

4장에서는 한국 사회 정주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교육과정 개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학습자의 정의적 요인과 비의도적인 학습이 포함된 잠재적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었으며, 완전 개념 교수요목과 내용 중심 수업이 추가 되는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어학연수(D-4), 학부(D-2), 대학원 진학(D-2-3), 구직비자(D-10), 비전문취업비자(E-9), 특정활동전문비자(E-7), 거주(F-2), 지역특화형(F-2-R), 영주(F-5), 귀화로 이어지는 ‘한국 정주 주기별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그간 유학정책은 유치와 관리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유학이라는 거대 담론은 이러한 단순한 유치와 관리적 측면으로만 그 면모가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의 초국가적 이동의 생태계 측면에서 밝혀져야 상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관리, 더 나아가 국가 간 함께 공존하는 삶으로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 정책연구소 대학중점연구소 1단계 실적보고서, 2021). 특히 이 연구는 한국의 이민 사회 도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 가능성을 실제적으로 가늠해 본 연구라 의의가 있다. 물론 연구 결과가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적 인식이라고 하는 데에 제약이 있으며, 베트남 국적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특히 대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 정주 시기별 한국어 교육과정’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범대학 차원에서 지자체나 정부기관과 연계하여 비교과과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분석 결과, 교육과정 개발 방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정주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강수정·전반뜨. 2021. 베트남인 교수자의 국내 베트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경험 사례 연구—교육과정 생성 관점에 근거한 교사 수준에서의 교육과정 재구성 실태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한글 82(1), 227-271.
- 교육부·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2018. 외국인 유학생 정주 지원 강화 방안 연구.
- 교육부·주태국한국교육원·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1.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교육과정(안).
- 김명광. 201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론. 소통.
- 김명광. 2021. 외국인 유학생 교양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개선 방안.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제33차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김민경. 2021. 매체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요구 조사 연구. 한국어교육 32(3), 33-54.
- 김종일. 2017. 대학특성화 교육과정 모형 연구: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류선숙·강민석·이아름. 2020.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양 교육과정 개발 연구-학업 역량의 구성 요소 및 내용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4), 201-212.
- 김진우. 1981. 문형연습의 재평가. 영어교육 22, 1-17.
- 남은영·이숙진·박혜란·장미선. 2019. 베트남 학습자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한국어언어문화학 16(1), 97-129.
-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8년도 선정 대학중점연구소 1단계 실적보고서. 2021. 한국연구재단.
- 박종호. 2021. 베트남 한국어 유학생의 한국 생활 적응 방안에 관한 연구. 에듀테인먼트연구 3(2), 37-49.
- 박지순. 2018.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반교어문연구 49, 15-48.
- 박지순·윤경원. 2020. 한국어 교재의 잠재적 교육과정 분석-젠더, 국적, 연령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71, 311-349.

- 송해련. 2022.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 및 장기체류 의사 결정요인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5(3), 73-94.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 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응웬 티 꾸잉안(Nguyen Thi Quynh Anh). 2020. 베트남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연구 동향. *한국어교육연구* 12, 151-175.
- 윤향희. 2021. 한국어교육 운영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목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가연 · 김유진 · 김찬미 · 김명광. 2022. COVID-19와 유학생 정책이 유학 생활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3(6), 4421-4436.
- 이승연 · 조현준 · 윤명식 · 전해리. 2020. 잠재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본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재 연구:시대에 따른 서술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2(12), 875-912.
- 이윤주. 2022. 중도탈락 귀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4(4), 141-168.
- 이윤주 · 이희숙 · 이용승. 2022. 유학생의 학업 수행과 관련한 정의적 요인 연구의 동향 분석-교육정책의 함의 모색을 위하여. *인문과학연구* 72, 319-361.
- 이정민 · 김에스더. 2022. 베트남 유학생의 “학습자 되어가기”의 경험 탐구:A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217-234.
- 장지영 · 조은영. 2020.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양 교육 과정 운영 현황과 과제. *교육문화연구* 72, 617-636.
- 전규미 · 전용수. 2019. 제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학습동기, 한국어 숙달도 간의 관계 연구. *MICE관광연구* 19(1), 161-177.
- 전해정. 2019.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업장 일 적응 경험: 구성주의 근거이론.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해정 · 이가연. 2015. 베트남 외국인 근로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6(4), 380-389.
- 조현용. 2018.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 연구. *우리말연구* 54, 213-215.
- 차숙정. 2022. 외국인 유학생 대상 문화적 문식성 교육 방안 연구: 학부 교양과정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_____ . 제3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법무부.
 _____ . 2013-2017 제2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법무부.
 _____ . 2018-2022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법무부.
 _____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1월. 법무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포용사회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 투고일: 2023.01.30. ● 심사일: 2023.02.08. ● 게재확정일: 2023.02.22.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Curriculum for the Settlement of Foreign Students in Korea -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ese students -

LEE Yunju (Daegu University)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possibility of foreign students staying in Korean society for a long time, focusing on the case of Vietnamese students, and to prepare a plan to develop a Korean language curriculum for permanent students. First of all, the study abroad policy that appear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Immigration Policy (1st to 4th) was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of rapidly increasing Vietnamese students and foreigners with Vietnamese nationality, as well as the Korean language curriculum and preceding research conducted at universities, were reviewed. Based on this, an interview sheet was formed, and afte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Vietnamese students studying abroad, language training (D-4), undergraduate (D-2), graduate school (D-2-3), job-seeking visa (D-10), non-professional employment visa (E-9), special activity visa (E-7), residence (F-2), regionally specialized (F-2-R) permanent residence (F-5), 'leading to naturalization' A 'linked curriculum', that is, a 'curriculum by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was developed. This laid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a Korean language curriculum in a holistic sense that can preemptively prepare for study abroad policy and educational innovation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ransnationalism.

<Key words> Transnationalist foreign students, immigrant society, Vietnamese nationality, Korean language curriculum by period of residence in Korea.

[별첨]

◆ 국적(지역)별·연도별 외국인 입국자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1년 1~11월	`22년 1~11월	전년 대비
총 계	15,630,522	17,880,503	2,659,845	1,044,545	948,157	2,831,882	198.7%
미 국	1,068,173	1,139,150	265,134	251,203	231,345	541,772	134.2%
일 본	2,976,445	3,303,088	438,708	18,025	16,681	223,767	1241.4%
중 국	5,032,905	6,284,486	740,039	187,908	174,809	219,840	25.8%
한국계	1,046,060	1,004,319	132,191	65,929	62,959	38,655	-38.6%
베 트 남	519,448	624,640	112,938	25,359	21,281	210,367	888.5%
필 리 핀	471,532	516,503	120,171	117,316	106,048	181,767	71.4%
태 국	565,784	580,191	78,878	9,351	8,299	143,620	1630.6%

◆ 체류외국인 연도별·국적(지역)별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1월
총 계	2,367,607	2,524,656	2,036,075	1,956,781	2,194,780
중 국 ¹³⁾	1,070,566	1,101,782	894,906	840,193	848,192
한국계	708,082	701,098	647,576	614,665	605,117
베 트 남	196,633	224,518	211,243	208,740	233,660
태 국	197,764	209,909	181,386	171,800	191,316
미 국	151,018	156,982	145,580	140,672	157,577
우즈베키스탄	68,433	75,320	65,205	66,677	79,019
러시아(연방)	54,064	61,427	50,410	48,680	55,110
필 리 핀	60,139	62,398	49,800	46,871	54,960
몽 골	46,286	48,185	42,511	37,012	50,153
캄보디아	47,012	47,565	41,405	41,525	47,820

13) 한국계 포함

◆ 등록외국인 국적(지역)별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국적별	계	중 국 ¹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필리핀	기타
인원	1,180,632	418,841	195,710	48,700	44,097	43,587	42,112	387,585
비율	100%	35.5%	16.6%	4.1%	3.7%	3.7%	3.6%	32.8%

◆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_국적별 현황

계	중 국 ¹⁵⁾	베트남	네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103,031	46,397	39,068	38,845	36,880	26,691	25,139
445,235	태국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국	몽골	카자흐스탄
	24,315	22,849	20,111	11,569	9,716	5,042	4,964
	파키스탄	동티모르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키르기즈	기타
	4,172	3,201	3,124	2,700	2,649	2,334	12,438

◆ 특정활동(E-7) 유형별 및 국적별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유형별	국적별	총계	중 국	베트남	미 국	네팔	인 도	기 타
전	체(직종)	23,020	6,671	4,187	1,456	1,352	1,042	8,312
	전문인력(67개)	9,329	876	1,403	1,451	62	652	4,885
	준전문인력(9개)	7,059	5,644	133	5	393	314	570
	일반기능인력(8개)	1,140	116	692	0	17	76	239
	숙련기능인력(3개)	5,492	35	1,959	0	880	0	2,618

14) 한국계 포함

15) 한국계 포함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 국적별·성별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구분	국적	총계	중국 ¹⁶⁾	한국계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미국	캄보디아	기타
전체		169,800	59,651	22,052	39,358	15,379	12,242	7,431	4,802	4,605	26,332
		100%		35.1%	23.2%	9.1%	7.2%	4.4%	2.8%	2.7%	15.5%
남자		33,336	14,055	8,425	3,987	1,301	576	129	3,350	657	9281
		(19.6%)									
여자		136,464	45,596	13,627	35,371	14,078	11,666	7,302	1,452	3,948	17051
		(80.4%)									

국적별 국적취득 현황

(2022.11.30. 현재, 단위 : 명)

국적	연도	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2년 1~11월
총 계		귀화	10,086	11,556	9,914	13,885	10,895	8,406
		회복	2,775	2,698	2,443	1,764	2,741	2,655
중 국		귀화	4,781	4,838	4,371	7,932	5,145	3,520
		회복	245	144	181	120	185	105
베 트 남		귀화	3,743	4,849	3,867	4,076	4,225	3,847
		회복	57	45	39	29	13	17
필 리 핀		귀화	359	597	423	375	241	165
		회복	7	7	11	7	25	10
몽 골		귀화	93	99	102	145	103	45
		회복	17	14	6	10	3	6
우즈베키스탄		귀화	48	72	78	138	97	93
		회복	27	12	6	8	12	10
일 본		귀화	29	17	14	15	20	23
		회복	38	53	41	54	86	86
태 국		귀화	52	58	52	68	78	72
		회복	4	5	3	7	6	7
파 키 스 탄		귀화	51	42	48	26	34	20
		회복	0	2	0	0	0	0
기 타		귀화	930	984	959	1,110	952	621
		회복	2,380	2,416	2,156	1,529	2,411	2,414

※ '45.8.15.~ '21년 말 까지 귀화자 수 : 225,976명

('91년~ '21년 말 까지 귀화자 수 : 224,321명)

16) 한국계 포함